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15편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3권 제19장 1-16절

?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뭐든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눈치 보며 지켜야 할 게 있을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자유'라는 말이 방종의 핑계가 되기 쉽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 가르침을 모르면 양심이 늘 불안하다고 보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먼저 자유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문제에서 양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둘째,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난 양심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녀로서 기쁘게 순종합니다. 셋째, 선도 악도 아닌 외적인 일(음식·옷·날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칼빈은 이 자유가 사치의 핑계나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절제의 기준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사람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의 양심은 묶을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절별 정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의 필요성. 1-3

 1.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로 이해해야 함

칼빈은 복음을 정리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양심이 무엇을 하든 머뭇거리고, 온갖 문제 앞에서 의심하며 흔들리기

됩니다. 칼빈은 이 주제를 지금까지 미뤄 온 이유도 밝힙니다. '자유'라는 말만 꺼내도 어떤 사람은 욕망을 풀어놓는 핑계로 삼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질서와 절제가 무너질까 봐 이 개념 자체를 꺼립니다. 그렇다고 위험하니 자유를 버리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자유를 모르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평안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가르침은 지키고, 흔히 나오는 어리석은 반론은 걷어 내겠다고 말합니다.

1. 자유를 모르면 양심이 늘 흔들린다
2. 자유는 칭의 교리 바로 다음 가르침
3. 방종하는 쪽도, 겁내는 쪽도 오해
4. 위험해도 버리지 말고 바로 가르친다

2.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 없음

자유 의의 첫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확신을 찾을 때, 신자의 양심은 율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율법은 세상 누구도 의롭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따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길은 율법에서 풀려나 행위를 따지는 계산에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행위를 조금은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의 방식과 한계를 사람이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율법 전체에 빚진 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문제에서는 율법과 행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나'가 아니라 '불의한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신자에게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을 의지하지 않지만, 삶에서는 율법이 계속 가르치고 권하여 거룩을 향하게 합니다. 칼빈은 이 두 자리를 조심스럽게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1. 칭의의 확신은 율법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2. '조금의 행위'는 기준을 정할 수 없다
3. 결국 율법 전체에 빚진 자가 된다
4. 그래도 율법은 사이 기차이로 나뉜다

에베소서 1:4

신자는 거룩하도록 택함 받았음 → 율법이 삶에서 여전히 필요한 이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4:7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을 보여 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3

(참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 갈라디아서의 논지

칼빈은 갈라디아서의 논지 거의 전부가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해석자는 바울이 말한 해방이 구약 의식(제사·할례 같은 예배 규정)에서 풀려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3:13과 5:1-4가 그보다 훨씬 큰 문제를 말한다고 반박합니다. 거기서는 저주에서의 속량, 그리고 할례로 의를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경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의식 문제를 다룬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미 폐지된 옛 '그림자' 속으로 교회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첫째, 의식이 가리키던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어떤 행위로도,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렇게 얻은 양심의 자유를 쓸데없이 다시 묶지 말아야 합니다.

1. 갈라디아서는 의식 해방만의 이야기 아님

이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 그림자

4. 정죄에서의 자유는 오직 십자가로

5. 얻은 자유를 다시 묶지 말 것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가 저주를 대신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심 → 의식보다 큰 문제임을 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5:1-4

할례로 의를 얻으려 하면 율법 전체를 질 의무가 생기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 → 칭의 문제임을 증명

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²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³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4:5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심 → 정죄에서의 자유가 그리스도에게서 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양심으로 기꺼이 순종함. 4-6

4. 순종은 율법의 강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님

자유 의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자유로운 양심은 율법을

기쁘게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칼빈은 신명기 6:5를 예로 듭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모든 생각을 비우고 온 영혼을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성장한 신자도 이 목표에서는 아직 멀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육체의 욕망이 발목을 잡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모든 시도는 저주받을 것으로만 보입니다. '불완전할 뿐 조금은 선하니 받아 주시겠지' 하는 위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므로 불완전함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자유가 먼저, 기쁜 순종은 그다음
2. 멍에 아래에선 두려움만 남는다
3. 가장 성숙한 신자도 율법엔 못 미침
4. '조금은 선하다'는 위로도 안 통함
5. 율법은 불완전함 자체를 정죄

신명기 6:5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랑의 기준 → 누구도 다 이루지 못함을 보여 주는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 진정한 순종의 동기

선을 행해도 저주만 돌아온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일에 힘을 쏟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엄격한 요구에서 풀려나 아버지처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기쁘게 온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칼빈은 종과 자녀를 비교합니다. 종은 날마다 정해진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인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자녀는 일을 반쯤 했거나 흠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부모 앞에 내놓습니다. 부모가 그 마음과 순종을 받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작고 불완전한 섬김을 자비로운 아버지가 받아 주신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말라기 3:17의 '아낀다'는 말은 너그럽게 봐주고, 부족해도 탓하지 않고, 그 섬김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노여워하실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진심 어린 섬김이 나올 수 없습니다.

2. 반쯤 한 일도 아버지께 내놓는다
3. 불완전한 섬김도 받으신다는 확신
4. 불안 속에서는 진심의 순종이 안 나옴

말라기 3:17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처럼 아끼신다 → 불완전한 섬김을 너그럽게 받으시는 근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यो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6.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행을 격려함

히브리서 11장이 옛 족장들의 선행을 모두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칼빈은 로마서 6:14를 이 자유를 보여 주는 대표 구절로 듭니다. 바울은 바로 앞(로마서 6:12-13)에서 몸을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신자들은 '우리 안에 아직 욕망과 죄가 남아 있는데요' 하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14절을 그런 신자들을 위한 위로로 읽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죄가 다 사라지고 의가 가득하다고 느끼지 못해도, 남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실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너희 행위는 율법 기준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유의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선행은 믿음에서 흘러나온다
2. 로마서 6:14는 연약한 신자를 위한 위로
3. 남은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됨
4. 죄 지을 핑계로 쓰면 그건 자유가 아님

히브리서 11:2

족장들의 삶을 믿음으로 평가함(11장 전체 흐름의 출발)

히브리서 11:17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도 믿음으로 함 → 선행의 뿌리는 믿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로마서 6:12-13

몸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권면

¹²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¹³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14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주관하지 못함 → 위로이자 자유의 근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로마서의 증거. 7-9

7.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

자유는 셋째 부분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닌 외적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쓰느냐 안 쓰느냐는 우리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양심이 쉬지 못하고 미신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당시

걸리면 끝없는 미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고급 리넨이 괜찮은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삼베도, 거친 삼베도 불편해지고, 결국 냅킨 없이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의심하면 검은 빵과 물조차 편히 먹지 못하고, 마침내 지푸라기 하나 밟는 것도 죄처럼 느껴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을 쓰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의심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경외를 버립니다. 어느 쪽이든 양심에 걸립니다.

1. 중립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매이지 않음
2. 모르면 양심이 쉬지 못하고 미신이 됨
3. 의심은 끝없이 미끄러진다
4. 결과는 절망 아니면 하나님 무시

8. 자유와 하나님의 목적

바울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고,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고 말합니다(로마서 14:14). 외적인 것들은 모두 우리 자유에 속합니다. 하지만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꺼림칙하게 여기면, 본래 깨끗한 것도 그 사람에게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 죄가 됩니다(로마서 14:22-23). 그렇다면 확신을 갖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양심을 거슬러 억지로 행하면 두려움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로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디모데전서 4:4-5). 감사란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리낌 없이, 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의식들도 마찬가지로 강요받을 필요는 없지만, 쓸 때는 덕을 세우는 쪽으로 써야 합니다.

1. 그 자체로 속된 물건은 없다
2. 의심하며 하면 그 사람에겐 죄

4. 주신 목적대로 거리낌 없이 사용

5. 사용의 방향은 덕을 세우는 쪽

로마서 14:14

스스로 속된 것은 없고 속되게 여기는 이에게만 속됨 → 외적인 것은 자유에 속함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로마서 14:22-23

의심하며 하면 정죄받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 → 양심의 확신이 중요

²²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²³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디모데전서 4:4-5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해짐 → 자유를 바르게 쓰는 방법

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⁵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9. 사치와 탐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이 자유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양심에 평안을 주는 데 있습니다. 죄 용서 때문에 불안할 때, 불완전한 행위 때문에 걱정할 때, 중립적인 일이 꺼림칙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왜곡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욕망대로 쓰면서 자유를 변명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란 사람 앞에서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라며 연약한 형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칼빈 당시에는 첫째가 훨씬 흔했습니다. 브르하 사람들은 오히려 사치와 죄악으로 '주리저리 일'이라며

말합니다. 그러나 탐하고 자랑하고 빠져 있다면, 그 자체로는 괜찮은 것도 더럽혀진다고 답합니다. 성경은 상아·금·재물·웃음·배부름·음악·포도주 자체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쾌락에 취하고 늘 새 즐거움을 찾는 데 쓰는 것은 선물을 바르게 쓰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무절제와 허영과 교만을 버리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선물은 사치가 아니라 삶을 위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문제라는 뜻에서, 초라한 옷 속에 교만이 숨기도 하고 세련된 옷 속에 겸손이 빛나기도 한다는 속담도 인용합니다.

1. 자유는 영적 문제, 목적은 양심의 평안
2. 사치의 핑계로 쓰면 자유를 왜곡한 것
3. 물건은 중립, 탐욕과 자랑이 더럽힌다
4. 선물은 사치가 아니라 삶을 위해 주심
5. 가난과 풍부 모두에 처하는 법 배우기

디도서 1:15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마음엔 아무것도 깨끗지 않음 → 문제는 마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누가복음 6:24-25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에게 화 → 쾌락에 안주하는 태도 경고

²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²⁵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모스 6:4

상아 침상에 누워 즐기는 자 → 사치에 빠진 모습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⁸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⁹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¹⁰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¹¹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¹²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빌립보서 4:12

비천과 풍부에 모두 처하는 비결 →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칙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약한 형제들과의 관계, 또한 상처를 주는 문제. 10-13

10.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하여야 함

많은 사람이 자유를 남에게 보여 줘야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무분별하게 자유를 써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상하게 합니다. 칼빈의 예는 금요일에 일부러 고기를 먹어야 자유를 누린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당시 로마 교회는 금요일에 고기를 금했음). 칼빈은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버리라고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과시해서 더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기든 달걀이든, 붉은 옷이든 검은 옷이든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뒤로 평생 고기를 안 먹고 한 가지 색 옷만 입어도 자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삼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자유를 쓰는 것은 큰 잘못이므로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자유를 드러내야 할 때도

1. 자유는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하나님 앞에서 알면 그것으로 충분
3. 삼가는 것도 자유의 한 모습
4. 약한 형제를 무시하면 큰 잘못
5. 드러낼 때도 약한 이를 돌볼 것

“자유를 행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자유를 삼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다”

11. 상처를 주는 문제

칼빈은 사람 앞에서 자유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여기서 '상처'는 신앙의 걸림돌을 뜻함)을 둘로 나눕니다. 내가 경솔하거나 방종하게, 질서 없이 행동해서 약하고 단순한 형제가 넘어지면, 그것은 내가 '상처를 준' 것입니다. 원인이 내 잘못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악의도 잘못도 없었는데 상대가 악의로 받아들여 이유 없이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상대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앞의 경우이고, 바리새인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의 무지는 배려해야 하지만, 바리새인의 완고함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약한 자를 받고, 걸림돌을 두지 말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거듭 말합니다. 자유는 형제를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기준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전하자,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1. '준 상처'와 '받은 상처'를 구분
2. 내 경솔함이 원인이면 내 책임
3. 약한 형제의 무지는 배려 대상

5. 자유의 목적은 화평과 사랑의 섬김

로마서 14:1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 배려의 의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13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5:1-2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라 → 원칙 요약

¹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²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8:9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25

시장 고기는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 자유 자체는 인정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10:29, 10:32

남의 양심을 위해,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고린도전서 10: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갈라디아서 5:13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마태복음 15:12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제자들의 보고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마태복음 15:14

“그냥 두라” → 완고한 자의 반발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2. 자유를 사용할 때의 지혜

누가 연약한 사람이고 누가 바리새인인지 가려내지 못하면 혼란은 계속됩니다. 칼빈은 바울이 가르침과 본보기로 그 선을 그어 준다고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고(사도행전 16:3), 디도에게는 할례를 거부했습니다(갈라디아서 2:3). 행동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디모데의 경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웠지만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 9:20-22). 종립적인 일에서는 자유를 절제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도의 경우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신자의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굽히지 않았습니다(갈라디아서 2:3-5). 거짓 교사의 부당한 요구로 연약한

되면 삼갑니다(고린도전서 10:23-24). 반대로 바울을 흉내 내 '절제'를 내세우면서 실은 자기 안락을 지키려고 자유 이야기 자체를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웃을 위해 자유를 쓰는 것이 삼가는 것만큼 중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일에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사랑의 의무를 더 잘 실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 디모데는 할례, 디도는 거부, 목적은 같음
2. 사람을 얻으려 할 땐 자유를 절제
3. 자유를 빼앗으려는 요구엔 굽히지 않음
4. 기준은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5. 안락을 지키려는 침묵도 잘못

사도행전 16:3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 → 자유를 절제한 본보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이러라

갈라디아서 2:3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음 → 자유를 행사한 본보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고린도전서 9:20-22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됨 → 사람을 얻으려 자유를 내려놓음

²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²¹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²²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갈라디아서 2:3-5

거짓 형제들에게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음 →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자유를 지킴

³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⁵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23-24

모든 것이 가하나 모두 유익하지는 않음, 남의 유익을 구하라 → 판단 기준

²³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²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3.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지금까지는 중립적인 일을 다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누가 걸려 넘어질 염려가 있어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앞서듯, 순결한 믿음이 사랑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마태복음 5:23-24 참조). 하지만 이웃을 위한다며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일을 차근차근 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는 조급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불경한 일에 앞장서 놓고 '이웃이 걸려 넘어질까 봐 그랬다'고 둘러대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에게는 젖이 필요하다'며 해로운 생각을 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고린도전서 3:2). 그러나 고린도에 로마 교회의 미사가 있었다면, 바울이 '젖'이라며 그것을 용인했겠느냐고 칼빈은 묻습니다. 젖과 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잠시 허용한다 해도 언제까지 젖만 먹이겠습니까? 칼빈은 이들을 길게 논박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이미 이들을 싫어하고, 다른 글에서 충분히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독자에게 두 가지를

나아갈 것, 그리고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조금도 벗어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1. 자유보다 사랑, 사랑보다 순결한 믿음
2. 해야 할 일은 오해가 있어도 한다
3. '배려'를 핑계로 한 타협은 거부
4. 젖과 독은 다르다
5. 하나님 명령 밖으로 나갈 자유는 없다

마태복음 5:23-24

(참조) 예배 전에 형제와 화해 → 사랑의 중요성을 인정

²³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²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린도전서 8:9

(참조) '걸려 넘어질까 봐'를 핑계로 오히려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위선 지적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3:2

젖으로 먹임 → 초신자 배려는 옳지만 거짓 예배(독)를 젖이라 부를 수 없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의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하는 것처럼, 사랑보다 순결한 믿음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인간의 권위



신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자유를 받아, 그리스도가 풀어 주신 문제들에서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양심은 모든 인간 권위에서도 자유롭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양심은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유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베드로전서 1:18-19). 칼빈은 바울의 말을 빌려, 우리 영혼을 사람에게 굴복시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고 말합니다(갈라디아서 2:21). 갈라디아서는 여러 장에 걸쳐, 양심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흐려지고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사람의 규칙에 매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상태라면 양심의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선동가와 비방자들이 마치 모든 순종이 사라진 것처럼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1. 양심은 인간 권위에 매이지 않는다
2.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
3. 양심이 묶이면 그리스도가 흐려진다
4. 그렇다고 모든 순종이 폐지된 건 아님

베드로전서 1:18-19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됨 → 자유의 값

¹⁸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¹⁹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21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심 → 칼빈은 영혼을 사람에게 굴복시키는 문제에 적용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갈라디아서 5:1, 5:4

종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라, 율법으로 의를 구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5. 이중적인 통치

이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가 두 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 통치로, 양심을 경건과 예배로 훈련하며 영혼과 관계됩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적 통치로, 사람이자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칩니다. 음식이나 옷,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과 관계됩니다. 이를 흔히 영적 관할권과 세속적 관할권이라 부릅니다. 둘은 각각 따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 안에 두 세계가 있고, 각 세계를 서로 다른 왕과 법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두 오류를 막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니 국가의 법에도 덜 매인다는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로우니 몸으로 지는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영적 통치에 속해 보이는 제도라도 말씀에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가려야 합니다. 국가 통치는 뒤에서, 교회법은 4권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3:1, 5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니, 국가법이 양심까지 묶는 것처럼 보여 어려움이 생깁니다. 칼빈은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양심'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안다'에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듯, 양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증인이 되어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 안의 일을 덮어 두지 못하게 추궁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칼빈은 이 양심이 보초병처럼 숨은 비밀까지 살핀다며 '양심은 천 명의 증인'이라는 옛 격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21과 히브리서 10:2도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고, 죄책에서 풀려나 죄가 더는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 영적 자유는 사회적 의무 면제가 아님
3. 로마서 13:5가 어려움을 더한다
4. 양심은 하나님 앞의 내부 증인
5. “양심은 천 명의 증인과 같다”

로마서 13:1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 국가 통치의 정당성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5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 → '국가법이 양심을 묶나'라는 난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로마서 2:15-16

양심이 증인이 되어 생각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함 → 양심의 정의

¹⁵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¹⁶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베드로전서 3:21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함 →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섬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히브리서 10: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6. 양심의 자유

행위가 사람 사이의 일이라면 양심은 하나님과의 일입니다. 선한 양심은 속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디모데전서 1:5와 1:19를 보면 양심은 지성(머리로 아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살아 있는 성향이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순수한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24:16처럼 사람에게도 양심을 말할 때가 있는데, 선한 양심의 열매가 사람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법이 양심을 묶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란과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명령은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양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중립적인 일은 다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28-29에서 누가 제물 고기라고 알려 주면, 알려 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를 듣고도 먹으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내 양심의 자유는 그대로입니다. 곧 이런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묶지만 양심의 자유는 그대로 둡니다.

1. 행위는 사람 앞, 양심은 하나님 앞
2. 양심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성향
3. 하나님의 도덕법은 혼자여도 지킨다
4. 중립적 일은 남을 위해 자유롭게 삼감
5. 겉 행동은 묶여도 양심은 자유

디모데전서 1:5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 양심은 속마음의 진실함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디모데전서 1:19

양심을 버린 자의 믿음은 파선했다 → 양심은 지성과 다른 영적 성향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사도행전 24:16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 → 양심의 열매는 사람에게도 미침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고린도전서 10:28-29

남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 겉 행동은 제한되어도 내 양심은 자유

²⁸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²⁹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오해와 반론

용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 덕분에 신자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죄와 불필요한 속박에서 풀려난 상태.

칭의(의롭다 하심)

죄인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율법의 멍에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야 바야들여지다는 안바 소에게 씌우는 나뭇잎에 비대

의식(儀式)

제사·할례·절기처럼 구약에서 예배와 관련해 정해진 규정. 칼빈은 이를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준 '그림자'로 본다.

중립적인 것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닌 외적인 일(음식·옷·날짜 등). 신학에서는 흔히 헬라어로 '아디아포라'(차이 없는 것)라고 부른다.

미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의 의무나 금기로 여겨 두려워하는 태도.

덕을 세우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든든해지도록 돕는다는 뜻. 건물을 세우는 이미지에서 온 말이다.

상처를 주다 / 받다

여기서 '상처'는 서운함이 아니라 신앙의 걸림돌을 뜻한다. 내 잘못으로 남이 넘어지면 '준 것', 남이 악의로 넘어지면 '받은 것'이다.

영적 통치와 국가적 통치(관할권)

양심과 예배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겉 행실과 사회 질서를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를 구분한 말.

양심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내면의 감각. 증인처럼 내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다. 라틴어 conscientia는 '함께 앎'이라는 뜻이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 겹이다. 칭의에서 율법을 넘어서는 자유, 억지가

- 이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것이다. 목적은 멀고 있는 양심의 평안과 선행의 격려이지, 욕망의 핑계가 아니다.
- 자유를 쓰는 기준은 사랑과 이웃의 덕이다.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삼가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요구에는 굽히지 않는다.
- 순서는 자유보다 사랑, 사랑보다 순결한 믿음이다. 하나님 명령을 벗어날 자유는 없다.
-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다. 사람의 법은 겉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의 양심은 묵지 못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